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9~11/4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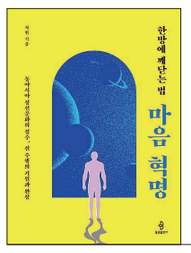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를 알고 싶어요	돈관스님	동국대학교 출판부
2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카르마 강의	최준식	김영사
3	왕초보 불교 박사 되다	석지현/윤창화/일지	민족사
4	일곱 번의 작별 인사(무비스님의 49재법문집)	무비	불광출판사
5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박산무이스님의 참선경에)	원택	장경각
6	부처의 인생 조언	정운	유노북스
7	화엄경 약찬게 풀이	김현준	효림
8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	원영	불광출판사
9	산사는 깊다	지안스님	불광출판사
10	월호 스님의 게송 명상	월호	맑은소리 맑은나라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월호스님의 게송명상	월호	맑은소리맑은나라
2	요가디피카	아행가/현천 역	선요가
3	부처님의 생애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4	닦는마음 밝은마음	김재웅 지음	용화
5	뜻대로 안돼도 괜찮아	한상희/윤정운 그림	운주사
6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7	열반경(1)	이운허 옮김	동국역경원
8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9	청정도론(1)	붓다고사/대림	초기불전연구원
10	불경 (SUTTA)	이중표 편역	불광출판사

지금 여기, 완전함을 자각하라



한방에 깨닫는 법 마음 혁명
자현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 3만원

8번째 박사학위 논문 바탕 저술
불안 시대 치유책 '관점 전환' 제시
동아시아 정신문화 핵심 직면해야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한방에 깨닫는 법'. 수행도 숏폼처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뜻일까 싶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불교계 전방위 지식인' 자현 스님은 신간 〈한방에 깨닫는 법, 마음 혁명〉에서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핵심 사유와 수행 전통을 직면하라"고 역설한다.

스님은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를 '세상을 부정하는 이원적 사고'에서 찾는다. 서구 근대철학이 '결핍의 인간'을 전제했다면, 동아시아 일원론은 '이미 완전한 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욕망을 억누르지 않으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혜를 찾는다. '이미 완전한 나'를 환기하고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 정신문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자현 스님은 "물질문명의 한계에 직면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명상과 같은 정신적 가치에 대한 요구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며 "그러나 인도의 불교나 요가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과 달리, 동아시아 전통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불교의 전래 과정과 유교·도교와의 결합 등 정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현 스님은 책에서 동아시아의 특징적인 정신문화에 대한 역사적이고 실질적인 담론을 펼친다.

1장에서 동아시아 명상의 특징과 선행 연구를 살핀 후 2장에서는 동아시아 명상의 배경이 되는 일원론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동아시아의 인간 완성과 명상의 핵심인 심성론을 검토하고, 4장에서는 동아시아 명상이 가지는 특징을 정리한다.



자현 스님은 10월 28일 서울 월정사문화원에서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마음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논의를 종합해 스님은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특징을 △현재의 지금에서 완성 △현실의 모순 그대로를 직시함 △인식 환기를 통한 관점 전환 △현재의 인정과 욕망 긍정 △걸림 없는 대자유 △타자에게 어떠한 강요도 없는 미학적 관점이라는 6가지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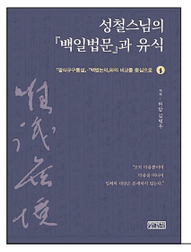
이 가운데 핵심은 '관점 전환'이다. 같은 현실이라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그 자체가 '깨달음의 문'이 된다는 것이다. 스님은 "불교의 수행이란 결핍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본성을 환기하는 혁명"이라며 "이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배우고 그 자체로 행복이 되는 영원한 자유로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다.

스님의 여덟 번째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책이라 읽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현실을 떠나 이상을 찾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함을 자각하라."

결국 이 책이 말하는 '한방'이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번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깨닫는 삶의 전환이다.

성철 스님의 유식, 수행으로 읽다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과 유식
김명우 지음
장경각 / 3만원

팔식·51심소로 해석한 〈백일법문〉
유식 입문자-수행자 아우른 지침서

퇴옹 성철 스님(1912~1993)의 열반 32주기를 앞두고 스님의 〈백일법문〉에 담긴 유식사상을 '팔식(八識)'과 '51심소(心所)'라는 두 축으로 깊이 있게 해석한 책이 출간됐다. 저자는 〈백일법문〉 연구에 천착해 온 김명우 교수(동의대 교양학부)다.

성철 스님은 "깨달음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스님은 〈백일법문〉에서 중국 명대의 참선 수행자이자 교학의 일인자였던 감산 스님과 그의 손상좌라 할 수 있는 지욱 스님의 주석서를 근거로, 현장 스님의 〈팔식규구(八識規矩)〉를 새롭게 풀어냈다. 김 교수는 이 점에 주목해 감산 스님의 〈팔식규구통설〉, 〈백법논의〉와 성철 스님의 법문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성철 스님이 어떻게 유식의 난해한 논리를 수행자의 언어로 재해석했는지 세밀하게 추적한다.

1장은 유식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을 용어들과 유식의 완성자인 세친 보살에 대해 설명한다.

2장은 〈백일법문〉과 〈팔식규구통설〉을 비교해 팔식에 대한 성철 스님의 입장을 규명한다.

3장은 팔식과 함께 작용하는 51심소에 대해 살핀다. 특히 〈백법논의〉의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51개소 심소 전부를 순서로 살폈다. 저자가 "참선은 물론 명상 수련을 하거나 위빠사나 수행을 하는 분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이 책은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수행 지침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수령 기자

〈화엄경청량소〉 40권 디지털 불사 완료

반산 스님, 20년 〈화엄경〉 역경 성과
5년 전 35권 완간…해제 등 5권 추가
"전자책으로 경전에 새 생명 불어넣어"

청량 징관 스님이 저술하고 반산 스님(양산 원각사 주지)이 역주한 〈화엄경청량소〉 전 40권이 전자책으로 출간됐다.

〈화엄경청량소〉는 청량 스님이 〈화엄경〉을 해석하고 주석한 책으로, 불교 교리와 수행 이론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교학의 결정판으로 평가된다. 반산 스님은 봉은사 소장 목판본 80권 〈화엄경소초회본〉을 저본으로 원문을 직접 입력하고, 소(疏)와 초(抄)를 직역 원칙에 따라 번역했다. 일부에는 스님의 견해를 덧붙였으며, 문체는 간결하게 다듬었다.

반산 스님은 지난 20여 년간 〈화엄경〉 역경 불사에 매진해 7처9회 39품을 완역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5권의 〈화엄경청량소〉를 출간했다. 이번 전자책은 기존 35권에 해제에 해당하는 〈화엄경 현담〉(3권)과 〈보현행원품별행소초〉(2권)를 추가해 40권으로 체계를 완성했다.

〈화엄경 현담〉은 경의 성립 배경과 교학적 위치, 찬술 경위 등을 서술해 방대한 〈화엄경〉의 사상 체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다. 〈보현행원품별행소초〉는 깨달음의 실천을 설한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담아 수행의 결론을 맺는 품이다.

전자책에서는 기존 출간서에서 생략됐던 원문과 번역문 100여 곳을 복원하고, 오탈자를 수정해 완성도를 높였다. 또 원문과 번역문을 병기해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 21일 열린 출판간담회에서 반산 스님은 "청량 징광 스님의 소·초는 전거가 분명한 문헌으로, 후학이 신뢰할 수 있는 불교 교학의 근본 자료로 남기고자 했다"며 "사장된 자료를 복원해 시대에 맞는 디지털 경전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이번 불사의 뜻"이라고 밝혔다.



반산 스님은 출판간담회에서 〈화엄경청량소〉(전 40권)의 전자책 출간 소식을 알렸다.



2020년 출간된 〈화엄경청량소〉(전 35권).

반산 스님은 통도사에서 고원 명정 화상을 은사로 득도하고 해인사 강원과 중앙승가대학,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쌍계사승가대학 강주 등을 역임하고 현재 양산 원각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화엄경청량소〉, 〈재미있는 화엄경〉, 〈재미있는 법화경〉,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 등이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2025년 새로 나온 불광출판사의 어린이 책!



그랜트와 틸리가 시골길을 산책해요
모니카 쿨링 글 | 시드니 스미스 그림
40쪽 | 값 16,800원

나는 무죄다
다비데 오레키오 글 | 마라 체리 그림
40쪽 | 값 16,800원

세상을 바꾼 도서관
캐서린 패터슨 글 | 샐리 덩 그림
112쪽 | 값 22,000원



만약에 어느 날…
브루스 핸디 글 | 애슐리 코린 그림
40쪽 | 값 16,800원

나의 해파리 소년
니콜 고드윈 글 | 크리스토퍼 닐슨 그림
40쪽 | 값 16,800원

모모의 여름 방학
야엘 아쌍 지음
128쪽 | 값 14,000원

꿈이 왔어요
미요시 아이 글·그림
40쪽 | 값 16,800원

우리는 언제나 사이에 있어

졸업, 새학기, 이사, 취업, 모든 순간에서 방향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림책



10월 최신간

위도 아래도 아닌 곳,
안도 밖도 아닌 곳에 '사이'가 있어요.
사이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 있지 않지요.
다리와 사다리, 계단과 경사로 같은 곳이
바로 사이지요.

알렉스 킬리언 글 | 그레이디 맥퍼린 그림 | 최현경 옮김
40쪽 | 값 16,800원

불광 어린이 인스타그램 bkbooks_child | 02-420-3200 | kimdh2321@naver.com

불광어린이